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1월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 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102장(어서 가 경배하세)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11장 1-45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며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새 교우 인사, 공지사항, 다음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01장(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 MEMO

[아시겠지만]

## \* ‘성탄 대축일’ 과 ‘공현 대축일’ 은 어떻게 다른가요 \*

가톨릭 교회의 전례주기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한 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 과 ‘예수 성탄 대축일’ 입니다. 교회는 이 두 축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수 부활 대축일’ 은 구약 전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 성탄 대축일’ 은 고대 그리스 및 로마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아 4세기에 형성되었습니다. 즉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관습적으로 생일 축제, 특히 황제나 저명한 사람들의 생일 축제를 지냈는데, 그들이 태어난 당일에 생일 축제를 지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당사자와 관련된 어느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습의 영향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던 아리아니즘을 배격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아들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주님의 탄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일을 정확히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뜻깊은 다른 어느 날을 선정하는 것이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날이 바로 새로운 해가 다시 소생하는 날로서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으로 떠오르는 참 빛이요 태양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탄 대축일이 정해짐에 따라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이 9개월 전인 3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고,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으므로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이 6월 24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 은 동방 교회에서 만들어진 축일로 그 유래는 ‘예수 성탄 대축일’ 과 비슷합니다. 동방, 특히 이집트에서는 태양의 탄일 축제를 1월 6일에 지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서방교회의 성탄 축일과 같은 의미로 그 날로 정해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 지내던 주님의 공현 축일이 4세기 말엽에 서방교회에 도입됨에 따라 예수 성탄 축일과 혼동되는 것을 막고 둘 사이에 차이점을 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 공현 축일을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시켜 후대에는 완전히 ‘주님 세례 축일’ 로 지내게 된 반면, 서방교회에서는 새로 탄생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세계에 공포하는 뜻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현자들의 방문을 부각시켜 ‘삼왕내조 축일’ 이라 칭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성탄 대축일’ 과 ‘주님 공현 대축일’ 은 둘 다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고유한 주제로 삼고 있기에 같은 의미의 축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차이점을 둔다면 ‘예수 성탄 대축일’ 은 가정 축제와 같이 하느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셨다는 강생의 신비에 더 치중하고, ‘주님 공현 대축일’ 은 세계적 축일로서 이 아기의 신적 차원으로 눈을 돌려 주님이 세상에 밝게 나타나셨음에 더 치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서묵상>

**주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요한 11,1-45)**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었던 세 사람이 등장한다.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가 그들이다.

복음은 라자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3, 4, 36) 라자로가 예수께 사랑 받는 모든 이를 대표하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예수께서는 라자로를 살리는 일이 당신을 죽이게 만드는 직접 동기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전갈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4절)이라고 하셨다.

“유다로 돌아가자”(7절)하신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신 선포였다. 토마가 “우리도 함께 가서 생사를 같이 하자”고 했듯이(16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당신 생명을 바치고자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라자로는 죽은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다. 무덤 속에 나흘 동안 묻혀있던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면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슬픔에 잠긴 마르타의 비탄은 예수님께 대한 불완전한 신앙을 드러낸다. 예수께서는 마르타를 더 큰 신앙으로 이끄신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유대인들이 옛부터 알고 있던, 마지막날 의인들이 부활하리라는 것을(다니 12, 2) 믿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합일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주위 사람들의 불신앙과 죽음의 제약을 받고있는 인간 조건에 대한 분노와 비통이며 또 예수께서 곧 겪게 되실 당신 자신의 죽음과 대면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예수께서는 이 한 구절 속에서 마지막 날의 부활을 예고하고 계신다.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요한 5, 25)

예수께서는 또한 이 부활이 이미 그분 안에 있다고 가르치신다. “네가 믿는다면, 너는 하느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40절)

**나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21절, 32절-

-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이런 비탄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 주셨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요한 9, 1-41절의 말씀을 읽고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겨자씨 ]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 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 안도현-